"삶과 예술은 하나"

광주공연예술제 감명을 부른다

▼ 리차드 용재 오닐

▲ 노래하듯이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 성황… '지킬 앤 하이드'·'용재 오닐' 관심 고조

▲ 지킬 앤 하이드

20일 개막한 2009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개막 공연으로 열린 이탈리아 아떼르 발레또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모던 발레의 진수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세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토대로 한 이번 작품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데서 벗어나 무용수 전원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분한 독특한 재해석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무용수들의 뛰어난 몸놀림과 감각적인 세트 등은 광주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21일 열린 강동석·조영창·파스칼 드 바이옹의 무대 역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세 사람은 차이코프스키의 곡으로만 무대를 꾸몄으며 특히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 강동석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은 현란한 테크닉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명품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24~25일 이틀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지킬 앤 하이드'는 세계 최고의 뮤지컬 배우 브래드 리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뮤지컬 배우들의 로망인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 팬텀 역으로 2천 200번이나 출연한 브래드 리틀은 이번 작품에서 선과 악을 상징하는 지킬과 하이드로 완벽하게 변신, 절정의 가창력과 연기력을 선보인다.

'지킬 앤 하이드'에는 특히 'Once upon a dream' 'This is the moment' 등 많은 대중 가수들이 불러 더욱 유명해진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가 많아 관객들을 기대감을 높인다.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28일)의 공연 역시 놓쳐서는 안될 작품이다. 최근에는 앙상블 '디토'의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는 용재 오닐은 카메라타 안티콰와 함께 무대에 선다.

'눈물' 등 발표하는 음반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용재 오닐은 이번 음악회에서 고전적인 감각의 바로크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며 주최측은 현재 공연 후 사인회를 타진중이다.

규모는 작지만 작품성으로 무장한 극단 '뛰다'의 '노래하듯이 햄릿', 사다리연구소의 '휴먼 코미디', 광주연극배우협회의 '허삼관 매혈기'도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은 세 작품 모두 매진돼 현장에서 자유석을 판매할 예정이다.

그밖에 조선의 팜프파탈 장희빈을 소재로 한 김충한무용단의 '장희빈'(27일), 광주현대무용단의 '천개의 공감'과 광주로얄발레단의 '루아흐'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광주무한가능'(30일)도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쉽게도 폐막 공연인 이탈리아 산 카를로 극장 초청 '오페라 갈라-투란도트'는 전석 매진이다. http : //www.gipaf.org 062-654-8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례 화엄사·해남 미황사·화순 개천사 등 사찰서 음악회

산사(山寺)음악회의 계절이 왔다. 가을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스님)= 땅끝마을 미황사의 산사음악회는 남도의 대표적 산사축제이다.

미황사는 24일 오후 1시 '땅끝마을 미황사의 꿈'을 주제로 '제10회 괘불재와 미황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꽃문양 탁본전과 미황사 문양 조각보 전시, 천년 역사길 걷기, 템플스테이도 음악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포크가수 박강수, 내벗소리 민족예술단, 대금과 소금 연주자 전병규, 판소리꾼 이병채, 피아니스트 김현정 등이 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문의 061-533-3521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 지리산 구례 화엄사는 24일 '길동무'를 주제로 '화엄제 2009'를 연다.

음악회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이 외로운 별에서 경쟁자가 아닌 길동무임을 깨달을 수는 없을까 하는 데서 찾았다.

인도 전통현악기 시타르의 명인과 타악기 타블라 연주가, 터키의 전통악기 탄부르 연주와 스웨덴출신 무대예술가의 만남 그리고 우리 남도소리 명창의 어우러짐에서 '길동무'의 의미를 찾아보자.

이들과의 만남 후엔 템플스테이도 준비돼 있다. 061-783-7600.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스님)= 비자나무숲이 장관인 천년고찰 개천사도 오후 6시 산사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삼소회'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음악회 현장에서 모금한 수익금 전액은 독거노인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음악회에서는 달마도 퍼포먼스, 살풀이춤, 진도 북춤, 대금, 아쟁 연주를 비롯해 관현악과 통기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1-373-1301

▲영암 월출산 도갑사(주지 월우 스님)=통일신라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도갑사는 24일 '제4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날 문화예술제는 오전 10시 예불을 시작으로 도선국사 탄신 1182주년 다례제, 혜성 스님의 '차 이야기 및 시연회', 도선국사 기념 법요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오후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효경(孝經)과 자녀 교육,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 특별강연과 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음악회에는 가수 마야와 진주아, 김용임,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1-473-511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직공원 팔각정에 서린 추억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사진전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를 통해 리모델링 된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팔각정에서 사진전이 열린다. 오는 11월4일까지 '팔각정 사진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 전시인 '어울림'전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박인수, 김대용, 오세봉, 주소영, 김주환씨 등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4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주로 '어울림'전이 열리고 있는 양림동 전통한옥 이장우 가옥, 최승효 고택 양림동을 담아냈다.

또 대부분의 작품이 흑백으로 촬영돼 사진첩 속 옛 추억을 더듬는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저녁 노을에 물든 낡은 골목과 서민들의 퇴근 길이 사실적으로 묘사됐고, 아늑한 마을 풍경이 그림처럼 담겼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새단장을 마친 팔각정이 광주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래된 담장과 허름한 골목길은 흑백 사진과 어우러져 아련한 추억을 자아내고, 양림동 주민들의 소탈한 모습에서는 삶의 고단한 여정이 느껴진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행사 때마다 상징조형물을 조성, 광주에 디자인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주환 작 '부엉이와 장구'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팔각정 외부에 스테인리스 스틸 LED봉을 설치해 낮에는 자연광에 반사되고, 밤에는 조명등을 밝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